경남 산청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Sancheong-gun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Korea

송 정 숙 (Song, Jung-Sook)**

◁ 목 차 ▷

1. 머리말
2. 경남 산청의 인문지리적 환경
 2.1 산청의 자연지리
 2.2 산청의 인물
 2.3 산청의 문화유적과 유물
3. 산청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 경향 분석
 3.1 문집의 유형 분석
 3.2 문집의 저자사항 분석
 3.3 문집의 간행사항 분석
 3.4 문집의 형태사항 분석
4. 맺음말
 4.1 요약
 4.2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초 록>

이 연구는 영남지방에서 목활자본 간행이 가장 활발하였던 경남 산청지역에서 간행된 91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대상으로 문집의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 등을 분석함으로써 경남 산청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구체적인 양상과 출판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현조(顯祖)가 있음을 증거하는 문집을 문집, 유집, 실기로 3구분하고, 문집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문집은 60%, 유집과 실기가 40%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1인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별집이었다.

2) 산청에서 조식과 그 학통을 잇는 학자의 문집은 모두 목판으로 인출되고 목활자로 간행되지 않았다.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는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문 활동하는 지식인이었다.

3) 목활자본 문집 저자 91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하면. 저자의 59%(54인)가 19세기에 출생한 것으로 보아 저자는 19세기와 20세기에 활동한 인물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4) 문집 저자의 성관(姓貫)을 분석하면, 문집을 간행한 31개 성씨 가운데 27개(80%) 성씨가 문집 1-2종을 간행하였고, 안동권씨가 가장 많은 23종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다음은 성주이씨(9종), 밀양박씨(8종), 여흥민씨(7종), 상산김씨(5종)의 순이다.

5) 문집의 간행은 현조의 제향공간인 재실이나 종가 등의 개인집, 누정(당 포함)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혈연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6)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년을 분석하면, 가장 많이 간행된 시기는 23종(25%)이 간행된 1930년대이고 1920년대, 1900년대, 1890년・1910년대의 순이다. 이로써 목활자본 문집은 한말과 일제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접수일: 2016년 12월 4일 최초심사일: 2016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26일

www.kci.go.kr

강점기에 대다수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저자 사후 문집 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하면, 문집은 과반수가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간행되었다. 문집이나 유집은 저자 사후 300년 이내에 다 간행되었는데 비해, 실기는 대부분 저자 사후 150년 이후에 간행되었다.

8) 목활자본 출판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산청은 종이재료인 닥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문집 간행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인쇄자, 즉 각수 또한 다수(75%) 확보하고 있었다.

9) 목활자본 문집의 권책수와 문집의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니, 1책의 비율이 실기(80%), 유집(70%), 문집(32%)의 순으로 실기가 가장 권책수가 적고, 문집이 권책수가 가장 많았다. 실기는 저자 사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난 후 편찬·간행되었기 때문이다.

10) 목활자본 문집의 판식을 분석하니, 항자수는 19, 20세기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1900년대에 사주쌍변이 증가하고, 1950년대 이후에는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 대신에 상이엽화문어미가 대세임을 알 수 있었다.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뿐 아니라 목판본, 석판본, 신연활자본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함과 아울러 이 연구를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 광역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要語: 목활자본, 문집 간행, 경상남도 산청군, 목활자, 인쇄 출판의 역사

<ABSTRAC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som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91 volumes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Sancheong-gun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The author analyzed type of collections of works, their birth year and the family name of the author, the place and the year, and the publisher of the publication, and the printers of these different 91 kinds of the collections of wor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llections of works demonstrate their forefathers' academic competencies. The types of collections of works were divided into 3 types, Munjip (文集), Yujip (遺集), and Silgi (實記). Of the collections of works 60% were Munjip. The authors were local intellectuals. Of these authors 59% of authors were born in the 19th century. Thirty one lineage groups published collections of works at Sancheong-gun. In terms of place, 58% of the collections of works were published in the worshipping halls for their ancestors. Seventy eight percent of the publications were published from 1893 to 1939. More than half of the collections of works were published within 50 years after the author had died. Of these 75% of the book printers were from Sancheong-gun.

Key words: wooden movable-type printing, printing and publishing of collections of works, Sancheong-gun, South Gyeongsang Province, history of printing and publishing

www.kci.go.kr

1. 머리말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의 확산 범위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었다. 문자 발명 이후 다양한 매체에 기록됨으로써 지식과 정보는 인간의 수명을 넘어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필사에 의존해야 했으므로 확산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인류는 인쇄술을 발명함으로써 지식과 정보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광범하게 확산하고 보존할 수 있었다.[1)]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서 보듯이, 신라시대에 이미 수준 높은 목판 인쇄문화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고려시대에 두 차례나 팔만대장경을 각판・인출함으로써 출판문화의 꽃을 피웠다. 조선조에 들어서는 국가의 통치이념을 보다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해 금속활자 인쇄가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국가의 비상시기로서 금속활자의 주조나 이용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그 대체수단으로 목활자가 이용되었다. 조선 건국 초기나 임란 이후 등 금속활자 주조를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전쟁으로 기반시설이 파괴된 상황에서는 국가기관에서도 나무에 활자를 새겨 공식적인 행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초기에는 공신들에게 지급할 녹권을 목활자로 인출했으며, 임란 이후에는 훈련도감의 병사들이 새긴 나무활자로 필요한 책을 인출한 것이 그 보기이다.[2)]

금속활자는 내구성이 있고,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출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마는 목판에 판각하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를 영구히 보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금속활자 조성과 조판에 고비용과 고난도의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방대한 사업이었으므로 금속활자는 민간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의 지식정보 확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민간에서는 목판과 목활자 인쇄를 통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확산하였다. 목판인쇄를 위해서는 판목의 준비와 판각작업에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많

1) 송정숙, “한국의 인쇄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한국의 문화유산』(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203-204 참조.
2) 송정숙,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출판활동,”『서지학연구』제42집(2009. 6), 267-298.

www.kci.go.kr

이 들지만, 한번 판각하고 나면 판목의 수명이 거의 영구적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종이와 먹만 준비되면 대량인출이 가능하고,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목활자는 내구성이 금속활자에 비해 떨어지지마는 조성작업에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적게 드는 이점이 있다. 목판은 원고의 내용만큼 판목에 판각해야 하고, 다른 책의 인출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판목의 준비와 판각에 막대한 비용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목활자 인쇄는 한번 사용한 활자를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목판에 비해 판목의 준비와 판각에 시간과 노력이 획기적으로 적게 드는 잇점이 있으므로 매우 경제적인 지식정보의 확산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문집을 간행할 경우, 편찬과 간행 비용이 충분히 마련되고, 배포 범위가 넓어 많은 부수가 필요하고, 장기간 수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목판에 새겨두고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인출하여 반포하였다. 하지만 비용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혹은 배포의 범위가 제한적일 때에는 목활자로 일정 부수 인출하고 난 뒤 판을 헐어 다시 필요한 다른 책을 인출하였다.

이처럼 목활자 인쇄는 목판 인쇄에 비해 저비용으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조판하여 인출하였던 인쇄방식으로 소량 다품종 주문 출판이 가능하였던 민간의 지식 정보 확산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 영남지방에서 목활자로 가장 많이 인출하였던 문헌은 문집과 족보였다.[3] 전통사회에서 양반, 즉 사족(士族)으로 인정받으려면 사(士)의 조건인 그 집안에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현조(顯祖)가 있어야 하고, 족(族)의 조건인 그 집안의 혈통이 존귀해야 한다. 문집은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현조(顯祖)가 있음을, 족보는 집안의 혈통이 존귀함을 증거하는[4] 자료로서 민간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인기있는 아이템이었다.

이제까지의 역사연구가 시간 중심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 일어났

3)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506종 가운데 문집(실기 포함)은 301종(61%)으로 가장 많았고, 족보는 156종(31%)으로 그 다음이었다(송정숙,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한국고활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2, 44).

4) 이수건, "족보와 양반의식,"『한국사시민강좌(일조각)』, 제24집(1999), 33. ; 송정숙(2002), 45-47.

www.kci.go.kr

는가의 시간에 관심이 있었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의 공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물사전에도 언제 활동했던 인물인가에 대한 기술은 상세하지마는 어디에서 활동했는가의 공간에 대한 기술은 소략한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목활자 인쇄라는 수단을 통해 지식과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확산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남지방에서 목활자 인쇄가 가장 활발하였던 산청[5]에서 간행된 문집을 대상으로 문집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으며, 문집의 저자는 어느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인가? 문집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저자 사후 몇 년 만에 간행되었는가? 목활자본 문집의 권책수는 어떠하며, 판식은 어떠한가? 등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경남 산청 지역 간행 목활자본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문집의 유형, 서명, 저자명, 저자의 생몰년, 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 관향, 편집자, 간행자(처), 간행년, 인쇄소, 인쇄자, 권책수, 사주, 광곽의 크기, 항자수, 어미, 책크기 등의 형태사항, 주기사항, 출처 등을 기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집의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 등을 분석함으로써 경남 산청지역에서 문집을 편찬하고 간행하게 된 연유와 목적, 그 의미를 파악하여 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구체적인 양상과 출판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2. 경남 산청의 인문지리적 환경

2.1 산청의 자연지리

경상남도 산청군은 조선조의 산음현과 단성현이 합해졌다. 1599(선조 32)년 왜적에 섬멸당해 단성현이 산음현에 통합되었다가 1613년(광해군 5)에 다시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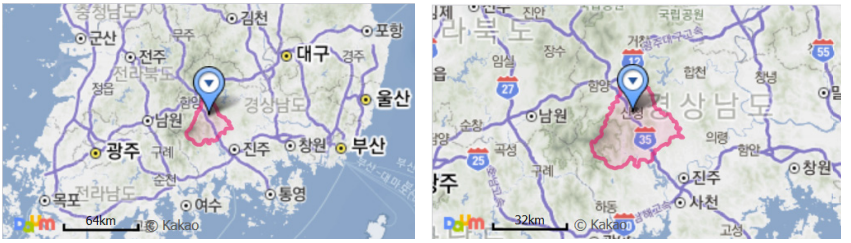
5)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506종 가운데 산청지역 간행본이 40종으로 가장 많았다(송정숙(2002), 55-57).

www.kci.go.kr

되었다.[6] 1767(영조 43)년에 산음현은 산청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895년 23부제 실시에 따라 진주부(晋州府) 산청군으로 바뀌었다가 1914년에 단성군(丹城郡)이 산청군에 통합되었다.[7]

산청군은 경상남도의 서북부에 위치하여 동부는 합천군과 의령군에, 서부는 함양군과 하동군에, 남부는 진주시에, 북부는 거창군에 각각 인접하였는데 그 규모는 동서가 38.8km, 남북 40.3km로서 주위는 대부분이 준험한 산령으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서부는 지리산 천왕봉을 기점으로 한 지리산맥(智異山脈)이 남북으로 질주하여 하동군 함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백운산의 지봉인 황매산(1,108m)이 합천군과의 분수령을 이루어 분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룡산(760m), 덕갈산(668m), 주산(831m), 우방산(570m) 등 산지가 624.3㎢로 전체면적의 78.6%를 차지한다. 옻나무・오동나무 등의 조림이 이루어져 있고, 제지용으로 쓰는 닥나무・피나무 등이 서식한다.[8]



<그림 1> 경남 산청군 지도[9]

6)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大東地志』, 2016.9.12.접속,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
7) 두산백과, "산청군의 연혁," 2016.10.5.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2451&cid=40942&categoryId=38271>
8) 두산백과, "산청군," 2016.10.5.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732&cid=40942&categoryId=38271>
9) 다음, "경남 산청군 지도," 2016.10.12. 접속, <http://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q=%EC%82%B0%EC%B2%AD>

www.kci.go.kr

2.2 산청의 인물

경상남도 산청군청이 산청지역의 인물로 내세운 이는 삼우당 문익점, 농은 민안부, 남명 조식, 덕계 오건, 면우 곽종석, 퇴옹 성철의 6인이다.[10]

2.2.1 삼우당 문익점

삼우당(三憂堂)[11] 문익점(文益漸, 1329-1398)은 진주(晉州) 강성현(江城縣)[12] 사람이다. 아버지 문숙선(文淑宣)은 과거에 올랐으나 벼슬하지 않았다. 익점은 가업을 계승하여 글을 읽어 1360(공민왕 9)년에 과거에 올라 김해부 사록(金海府司錄)에 임명되었으며, 계묘년에 순유 박사(諄諭博士)로써 좌정언(左正言)에 승진되었다. 계품사(計稟使)인 좌시중(左侍中) 이공수(李公遂)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원(元)나라 조정에 갔다가, 장차 돌아오려고 할 때에 길가의 목면(木緜) 나무를 보고 그 씨 10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 갑진년에 진주(晉州)에 도착하여 그 씨 반으로써 본고을 사람 정천익(鄭天益)에게 이를 심어 기르게 하였더니, 다만 한 개만이 살게 되었다.[13] 천익(天益)이 가을이 되어 씨를 따니 백여 개나 되었다. 해마다 더 심어서 정미년 봄에 이르러서는 그 종자를 나누어 향리(鄕里)에 주면서 권장하여 심어 기르게 하였는데, 익점 자신이 심은 것은 모두 꽃이 피지 아니하였다. 중국[胡]의 중 홍원(弘願)이 장천익의 집에 이르러 목면(木緜)을 보고는 너무 기뻐 울면서 말하였다.

"오늘날 다시 본토(本土)의 물건을 볼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10) 성철(1912-1993) 스님도 산청[단성면 묵곡리] 출생이지마는 현대의 인물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11) 문익점의 호, '삼우당(三憂堂)'의 세 가지 근심은 첫째, 나라의 운수가 부진한 근심. 둘째, 성학의 발달이 부진한 근심. 셋째, 자신의 학문이 부진한 근심이다(산청군 문화공보실 편, 『내고장 傳統』(산청: 산청군, 1982), 32).

12) 조선 세종조에 단성현(丹城縣)으로 명칭을 고쳤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慶尙道 丹城縣).

13) 목화를 처음 심었던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에 목화시배 사적비가 있다.

www.kci.go.kr

천익은 그를 머물게 하여 며칠 동안을 대접한 후에 이내 실 뽑고 베 짜는 기술을 물으니, 홍원이 그 상세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주고 또 기구까지 만들어 주었다. 천익이 그 집 여종에게 가르쳐서 베를 짜서 1필을 만드니, 이웃 마을에서 전하여 서로 배워 알아서 한 고을에 보급되고, 10년이 되지 않아서 또 한 나라에 보급되었다.[14]

귀국 후 이성계와 조준, 이정 등이 전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문익점이 반대하여 파직되었는데, 그때가 59세였다. 문익점은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정권을 잡자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는데, 이성계가 친히 청하여도 나가지 않고 거절하였다. 1398년(태조 7)에 별세하였다. 그후 태종조에 '참지의정부사 강성군(江城君)'으로 추증(追贈)되었다.[15] 조선 태종 때 건립한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의 도천서원은 선생을 모시고 매년 제향을 올리고 있다.

2.2.2 농은 민안부

농은(農隱) 민안부(閔安富, 1330-?)는 본관이 여흥으로 고려말 송경[지금의 개성]에서 살면서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고 공양왕 때에는 예의판서(禮儀判書)에 이르렀다. 32대 우왕(1375~1388년) 집권기에는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지던 시기로 이성계는 1388년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잡아 1392년에 조선을 세웠다. 고려가 이렇게 망하자 많은 충신들이 이성계에 불복하므로 정몽주, 이색, 조민수, 권근 등이 귀양을 가거나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다른 충신들도 관복을 벗고 두문동[16]으로 들어갔다. 두문동에 민안부도 들어갔다가 이성계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물러나 산청군 생초면 대포리 한계에까지 내려와 숨어 지내며, 산과 강을 벗 삼아 농사를 짓고 스스로 위안하며 살았다. 또한, 그의

14)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1398) 6월 13일 정사(丁巳). "전 좌사의대부(前左司議大夫) 문익점의 졸기(卒記)".
1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경상도 단성현.
16) 두문동이란 조선이 세워지자 이에 반대하던 고려의 신하들 72명이 경기도 개풍군 광덕산 기슭에 들어가, 고려에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면서 조선에 벼슬하지 않고 싸우다가 이성계로부터 죽임을 당한 곳이다.

www.kci.go.kr

아들 민유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벼슬하지 않았다. 그 후 후손이 번성하였는데, 조선 500년간 산청 민씨의 시조가 되었다.[17]

1822(순조 22)년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고려조의 예의 판서(禮儀判書) 민안부(閔安富)·김충한(金冲漢) 두 사람이 고려 말엽에 지조를 온전히 지킨 실상을 아뢰자 순조는 두 사람을 송경(松京)의 두문동(杜門洞) 표절사(表節祠)에 추가로 배향하라고 윤허하였다.[18]

2.2.3 남명 조식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의 자(字)는 건중(楗仲)이니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 조언형(曺彦亨)의 아들이다. 삼가현[현재의 경상남도 합천군] 토동(兎洞) 외가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어른처럼 정중하였으며 장성하여서는 통달하지 않은 책이 없었고, 특히 『좌전(左傳)』과 유종원(柳宗元)의 글을 더욱 좋아하였으며, 저술(著述)에 있어서는 기발하고 고상한 것을 좋아하고 형식에 구애되지 않았다.[19]

부친 조언형은 생원시와 전시에서 장원하였고 이후 요직인 이조정랑을 지내면서 가문이 창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식의 숙부 조언경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가솔과 함께 목숨을 잃었고, 부친 조언형 역시 말년에 모함으로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조식은 연이은 사화를 지켜보면서 벼슬길에 회의를 갖기도 했지만, 곧장 과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1520년(중종 15) 진사 생원 초시와 문과초시에 모두 급제한 조식은 이듬해 문과회시에 응시했으나 낙방했다. 그 후 과거 준비와 함께 학문을 닦던 그에게 일생의 항로를 바꾸는 전기가 찾아왔다. 과거 시험 공부를 하던 중 『성리대전(性理大典)』에 실려 있는 "대장부가 벼슬길에 나가서는 아무

17) 산청군청 홈페이지, "산청지역의 인물: 농은 민안부", 2016.9.15.접속 <http://www.sancheong.go.kr/tour/contents.do?key=669>
18) 『순조실록』 권25, 순조 22년(1822) 12월 26일 병인.
19) 『선조실록』 권6, 선조 5년(1572) 2월 8일 을미. "처사 조식의 졸기."

www.kci.go.kr

하는 일이 없고 초야에 있으면서는 아무런 지조도 지키지 않는다면 뜻을 세우고 학문을 닦아 장차 무엇을 하겠는가?"[20]라는 원나라 허형(許衡, 1279-1368)의 글이 그의 가슴을 친 것이다. 이때가 그의 나이 25세가 되던 해였다. 이후로 조식은 출세를 위한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학문을 버리고 유학의 본령을 공부하는 데에 전념하였다.[21]

26세 때에는 부친이 돌아가시어 고향인 합천군 삼가면 토동에 살다가 30세 때 처가가 있는 김해군 탄종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이사하면서 산해정(山海亭)이라는 독서당을 짓고 본격적인 학문 활동을 했다. 그의 명성이 중앙정계에까지 알려지자 38세 때 나라에서 헌릉참봉, 48세 때는 전생서(典牲署)의 주부를 제수하였으나 또한 나가지 않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 계부당(鷄伏堂)과 뇌룡정(雷龍亭)을 짓고 사화 이후 흩어진 선비들을 모아 학문에 힘썼다.

61세 때인 1561년 조식은 김해에서 다시 지리산 아래 산청 덕산으로 이사하여 산천재(山天齋)를 짓고 후학을 가르치는 일로 말년을 보냈다. 덕계 오건・한강 정구・망우당 곽재우 등 수많은 인재들이 그와 인연을 같이 했다. 72세인 1572년에 병이 심하여 세상을 떠났다.

조정에서는 남명선생의 고고한 유덕을 찬양하여 문정이란 시호를 내리고 영의정에 증직하였으며, 길이 전승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덕산에 덕천서원을 세우고 사액 받아 지금도 제향하며 추모하고 있다.[22]

---

20) 郭鍾錫, "南冥曺先生墓誌銘", 『俛宇集』.
"志伊尹之志, 學諺淵之學, 出則有爲, 處則有守, 大丈夫當如此, 出無所爲, 處無所守, 則所志所學將何爲."

21) 『인물 한국사』, "조식: '敬'과 '義'의 선비정신을 실천한 칼을 찬 처사", 2016.10.16.접속,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7480> ;
『선조실록』에는 "(조식이) 하루는 글을 읽다가 허노재(許魯齋, 許衡)의 '이윤(伊尹)이 뜻했던 바를 뜻하며 안연(顔淵)이 배웠던 바를 배운다.'라는 말을 보고 비로소 자기가 전에 배운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고 과감하게 실천하여 다시는 세속의 학문에 동요되지 않았다."고 하였다(『선조실록』 권6, 선조 5년(1572) 2월 8일 을미. "처사 조식의 졸기").

22) 산청군청 홈페이지, "산청지역의 인물: 남명 조식선생과 격지", 2016.9.16. 접속, <http://www.sancheong.go.kr/tour/contents.do?key=666>

www.kci.go.kr

2.2.4 덕계 오건

덕계(德溪) 오건(吳健, 1521-1574)은 1521(중종 16)년 산음현[현 산청군] 덕촌에서 함양 오씨 세기(世紀)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자강(子强), 호는 덕계이다. 11세에 부친상을 당했으나 효성으로 소문이 났으며, 모친상 때에는 더욱 예의에 힘썼다. 14세 때부터 경(經)·자(子)·사(史)에 몰두했으나 집이 가난해 선생을 모실 수 없었다. 그래서 홀로『중용』을 수백 번 거듭 읽어 뜻을 통달하고『대학』·『논어』·『맹자』 등도 연구하였다.[23]

오건은 31세 때 진사 시험에 합격한 뒤에 덕산으로 남명 조식을 찾아 학문을 닦았다. 1558년(명종 13) 38세 때 대과에 급제하여 39세 때부터 관직생활에 나아갔다. 첫 벼슬이 성균관 교유로서 경북 성주에 가서 당시 목사인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과 같이 녹봉정사를 짓고 학생을 모아 가르쳤다. 이때 이질인 한강(寒岡) 정구(鄭逑)를 불러 사서까지 가르쳐 수제자가 되었다. 이때 도산으로 이퇴계를 찾게 되었는데 43세였다. 다음해 성균관의 학유가 되어 서울에 돌아가게 되었다. 그는 52세 때 고향에 돌아와 1574년(선조 7) 54세에 세상을 떠났다.[24]

그는 독학으로 자성한 바탕 위에 남명과 퇴계의 가르침을 받아 중앙정계에서 지행일치를 실천하였다.

2.2.5 면우 곽종석

면우(俛宇) 곽종석(郭鍾錫, 1846-1919)은 본관은 현풍(玄風). 자는 명원(鳴遠), 호는 면우이다. 1846(현종 12)년 6월 24일에 단성면 사월리 초포동에서 곽원조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25세 때 학문에 뜻을 두고 경북 성주로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25]을 찾아

23) 정중환, "오건(吳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24) 산청군청 홈페이지, "산청지역의 인물: 덕계 오건", 2016.9.16.접속, <http://www.sancheong.go.kr/tour/contents.do?key=670>

www.kci.go.kr

스승으로 섬겨 성리학에 능한 그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을 닦았다. 1895년(49세) 조정에서 충청도 비안 현감으로 임명했으나 나가지 않았다. 그해 8월에 민비가 시해되자 일본의 횡포에 분격하여 이듬해 봄에 서울에 가서 천하대의를 밝히라는 포고문을 지어 여러 나라 공사에 보냈고, 1896년(50세)에 거창군 가북면 다전에 들어가 살았다.[26]

이 무렵 서울에서는 독립협회가 해산당한 뒤, 전국에서 인재를 구하고 있었다. 이 때 1899년 중추원 의관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당시 『한주집(寒洲集)』을 편찬하였으며, 『남명집(南冥集)』도 교열하였다.

59세 되던 해(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10월에 서울에 가서 임금에게 매국한 5적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그런 뒤로는 제자들 교육에 전념하였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다. 곽종석은 3백여 년 동안 끊어진 영남우도 학통을 다시 일으켜 많은 후진을 양성하였다. 영남은 물론, 호남의 전우(田愚)와 기정진(奇正鎭), 기호의 이항로・김복한(金福漢) 등의 유문(儒門)과 또 양명학계의 황원(黃瑗)과 개성 출신 김택영(金澤榮) 등과도 교유하였으며,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교리까지 탐구하면서 심즉리설을 발전시켜 갔다. 한편, 조식(曺植)과 이진상을 비롯한 경상우도 유림의 문적과 유적을 정리하여 이 지방 학풍의 위치를 확립해 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학자적 명성은 더욱 널리 알려졌고, 따라서 3・1운동 때 137인의 파리장서에서 대표로 추대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2년형의 옥고를 겪던 중에 옥사 직전에 병보석으로 나왔으나 여독으로 74세에 세상을 떠났다.[27]

---

25) 이진상(1818-1886)은 기본적으로 리(理)의 活物設을 주장하는 퇴계학파에 속하지만 이진상이 주장한 심즉리설은 퇴계학을 양명학의 방향으로 틀어놓은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도산서원의 정통 퇴계학파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사후에 문집이 불살라지는 수모를 겪었다. 이진상의 문인으로는 곽종석(郭鍾錫)이 대표적이며, 그의 학문을 가장 잘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그의 아들 이승희(李承熙, 1847-1916)이고, 이승희의 제자로는 파리장서 운동을 주도하고 성균관대학의 기초를 마련한 김창숙(金昌淑, 1879-1962)이 있다(한국사상사연구회 편저, 『조선 유학의 학파들』(예문서원, 2009), 593-594).

26) 산청군청 홈페이지, “산청지역의 인물: 면우 곽종석”, 2016.9.16.접속, <http://www.sancheong.go.kr/tour/contents.do?key=671>

27) 조동걸, “곽종석(郭鍾錫),”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

www.kci.go.kr

2.3 산청의 문화유적과 유물

2.3.1 남명 관련 문화유적

남명 조식의 학문적인 공간배경은 조식이 탄생한 합천군 삼가면과 처의 고향인 김해시, 만년에 이주한 현재의 산청군 시천면 덕천동 등의 지리산권이다.[28] 산청에 있는 남명 조식관련 유적지는 두 곳으로 나뉘는데, 사리(絲里)에는 산천재(山天齋)·별묘·신도비·묘비가 있고, 원리(院里)에는 덕천서원(德川書院)과 세심정(洗心亭)이 있다.

산청에 있는 남명 조식 관련 문화유적을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산청군 소재 남명 조식 관련 문화유적[29]

유적명	소재지	설명
덕천서원	시천면 원리	덕천서원은 남명이 타계한 4년 뒤 1576년(선조 9)에 남명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 유림들이 세웠으며, 그 뒤 남명의 제자인 수우당 최영경을 배향하였음.
남명기념관	시천면 사리	남명과 관련한 유물들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외부공간에는 신도비, 남명 석상, 여재실 등이 있음. 2004년 완공.
남명선생 묘소	시천면 사리	산천재 뒷산에 위치한 묘소는 남명이 생전에 직접 정한 곳이며, 대곡(大谷) 성운(成運)이 지은 묘갈명(墓碣名)이 있음
여재실	시천면 사리	문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묘로, 남명과 정경부인, 숙부인 등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음.
세심정	시천면 원리	세심정은 선생의 제자인 최영경(崔永慶) 등이 중심이 되어 덕천서원을 지을 때 함께 지은 정자임.
장판각	시천면 사리	남명의 문집 책판 185매를 보관하던 전각. 산천재(山天齋)에 보존하였으나 현재는 남명기념관에서 보관.

문화연구원, 2002).

28) 경남발전연구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기본계획』(산청: 산청군, 2007), 80.

29) 경남발전연구원(2007), 80-85.

www.kci.go.kr

유적명	소재지	설명
신도비	시천면 사리	남명 조식 사후에 영의정이 추증되자 처음에 정인홍(鄭仁弘)이 신도비를 세웠으나 인조반정으로 훼손되고, 그 뒤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것이 현재 전해지고 있음.
산천재	시천면 원리, 사리 산72	산천재는 시천면 사리 덕천강가에 있으며 지리산 천왕봉을 마주보고 있다. 남명이 61세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후진을 양성하며 국정에 대한 헌책을 올린 곳.
서계서원	산청읍 지리	남명의 제자인 덕계 오건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으로 조선 1606년(선조 39)에 건립, 1677년(숙종 3)에 '西溪'라는 현판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이 되었음.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철거되었다가 1920년대 복원되었음.
배산서원	단성면 사월리	도천서원에서 모시고 있던 청향당 이원과 죽각 이광우를 따로 모시기 위해 세운 서원으로, 이원(1501-1568)은 벼슬이나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연구를 한 조선 전기의 학자로 조식, 이황과 학문의 뜻을 같이 하였음.

2.3.2 산청의 문화유적과 유물

목활자본 문집을 많이 간행한 산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산청의 문화유적과 유물[30]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산청의 문화유적과 유물

유형	내 용
책판	남명선생 문집책판, 덕계선생문집책판 및 사호집·수오당실기책판, 단계선생문집책판, 장위리 사서석의(四書釋義)책판, 이택당소장 성재선생문집책판, 일신당문집 및 필첩책판

30) 『두산백과』에서 제시한 산청군의 "문화유적"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고인돌 같은 선사유적, 사찰이나 석탑 등의 불교 관련 유적, 은행나무 등 식물, 신계서원 제기는 제외하였다. 반면에 1982년 8월 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07호로 지정된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143번지 김동준씨가 소장한 『단계선생일기(端溪先生日記)』(29권)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52호 산청장위리사서석의책판(山淸 長位里 四書釋義 冊版)은 추가하였다. 『두산백과』, "산청군", 2016.10.16.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732&cid=40942&categoryId=38271>

www.kci.go.kr

유형	내 용
고문서	단성현호적장적, 이제 개국공신 교서
고서	단계선생일기, 산청군읍지
주택	단계박씨 고가, 단계리 권씨고가, 대포리 민씨고가, 사월리 이씨고가, 소남리 조씨고가, 사월리 최씨고가, 소남리 권씨고가, 금서면 민재호 가옥, 단계마을 옛 담장, 남사마을 옛 담장
유적	목면시배 유지, 문익점묘, 조식유적, 곽종석유적, 장천리도요지
서원	덕천서원, 대포서원, 서계서원, 배산서원, 도천서원, 청곡서원
향교	단성향교, 산청향교
정사	신안정사, 용강정사
누정	임리정, 이요정, 읍청정
재실	송계재, 우계당, 신안사재, 덕양전
비석	문익점신도비, 삼우당효자비, 척화비

위의 산청의 문화유적과 유물 가운데 책판을 살펴보면, 산천재에 소장되어 있었던 남명 조식의 『남명선생문집(南冥先生文集)』책판, 서계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덕계 오건의 『덕계선생문집(德溪先生文集)』책판, 오건의 아들인 오장(吳長)의 『사호집(思湖集)』책판과 오장의 스승인 오한(吳僩)의 『수오당실기(守吾堂實記)』책판,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김동준 소장의 단계(端溪) 김인섭(金麟燮, 1827-1903)의 『단계선생문집(端溪先生文集)』책판, 용궁김씨 술고재 종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산청장위리 『사서석의(四書釋義)』책판, 이택당 소장의 성재 허전의 『성재선생문집(性齋先生文集)』책판, 신안면 청현리 청곡서원(淸谷書院)에 소장되어 있는 조식(曺植)의 문인인 이천경의 『일신당문집(日新堂文集)』 및 필집(筆集) 책판이 전한다.

이로 볼 때 조선 성리학의 거두인 조식과 그의 학통을 잇는 문인의 문집, 기호남인학통을 잇는 성재 허전의 문집은 목판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3. 산청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 경향 분석

3.1 문집의 유형 분석

문집(文集)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의 문장이나 시부 등을 찬집한 것으로 합고류(合稿類)・유집류(遺集類)[31]・전집류(全集類)[32]・실기류(實記類)[33] 등을 포괄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문집의 하위범주를 문집, 합고, 유집, 전집, 실기로 다섯 구분한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문집의 하위범주를 문집, 유집, 실기로 세 구분하고, 합고와 전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합고는 저자 2인 이상의 시문이 합편되는 경우인데, 이는 유집이나 실기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전집은 1인의 시문이 여러 차례 편찬, 간행되는 경우에 후일에 모두 모아서 전집의 형태로 편찬되어 양은 방대하지만 문집 가운데 1인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별집에 해당하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문집이나 유집, 실기 모두 저자 1인의 시문이면 별집, 2인 이상의 시문이면 합집으로 구분하였다. 문집에 실린 내용이 일반적으로 운문인 시(詩)와 산문인 문(文)이 함께 실리지만, 시만 모아놓은 경우에는 시집으로 따로 구분하였다.

산청지역에서 간행된 91종의 목활자본 문집의 유형을 보면 <표 3>과 같다.

---

31) 유집류는 유고・유집・일집(逸集)・일고(逸稿) 등이 이에 속하는데, 유고(집)는 유문(遺文)을 모은 유문집이라는 뜻이고, 일고(집)는 저작자의 작품이 전란이나 기타 재화로 인하여 없어지고 남은 잔편(殘篇)을 수집, 편찬할 때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유고나 일고는 저자의 자편(自篇)일 수 없고 후인(後人)이 찬집한 것이 되며, 분량은 대개 1, 2책 정도이다(류탁일, “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32) 전집류는 저술을 많이 남긴 큰 학자의 모든 저작물을 모아 편집한 책을 말하는데, 전집(全集)・전서(全書)・대전(大全)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성호선생문집(星湖先生文集)』・『도산전서(陶山全書)』와 같이 쓰임이 보통이나, 한 개인의 저작 전집을 ‘대전’으로 붙인 것은 송시열(宋時烈)의 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이 유일한 것이다(류탁일, 2002).

33) 실기류는 한 개인의 행적을 기록한 일종의 전기적 성격을 가진 책을 말한다. 실기는 주로 피전자(被傳者)의 행적을 주로 하고, 그가 남긴 시문과 후인들의 송찬(頌讚)・시문을 합하여 간행하는 것이다. 정확한 의미로는 전기류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집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되어 사용된다. 실기는 본인의 저술은 별로 없고 후인들의 송찬・시문 및 사적(事跡)이어서 사실이 더러 과장되었거나 허구성이 짙은 경우도 있다(류탁일, 2002).

www.kci.go.kr

<표 3>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유형

구분			종수	%	문집명(종수)
문집(文集)	별집	시문	52	57.1%	虛齋文集, 澗翠集, 竹潭集, 望賢齋先生文集, 山石集, 尼溪集, 晩醒集, 鶴山文集, 貞山文集, 易堂稿, 沙村先生文集, 錦石文集, 恒窩集, 汲古齋先生文集, 病隱先生文集, 龍岡先生文集, 南皐先生文集, 訥窩文集, 月圃集, 南川先生文集, 月淵集, 某堂集, 龍潭集, 愚潭文集, 海閭集, 南窓集, 東山先生文集, 退庵集, 霜溪集, 梧潭先生文集, 直菴集, 兼山集, 石愚集, 明湖文集, 而堂先生文集, 梧岡文集, 春坡藁, 麴巖先生文集, 芝岡文集, 稽樵文集, 果齋先生文集, 心潭遺集, 樂愚堂集, 新溪集, 湖上趾美錄, 思軒遺集, 思窩先生文集, 復菴集, 默隱集, 愚山集, 惠山集, 勿川先生文集附錄
		시	1	1%	虛齋詩集
	합집	시문	2	2.1%	聯芳輯錄, 商山世稿
		시	1	1%	花溪風謠
유집(遺集)	별집		20	22%	正齋遺稿, 南角遺稿, 文山遺稿, 孤松先生遺集, 病窩遺稿, 石泉遺稿, 豊湖遺稿, 西洲遺稿, 石帆遺稿, 三山遺稿, 咸齋遺稿, 愼菴遺稿, 東洲遺稿, 菊坡遺稿, 松菴遺稿, 橘下遺稿, 毅齋遺稿, 東窩遺集, 无爲子先生遺集, 謙窩遺藁
	합집		0		
실기(實記)	별집		14	15.4%	三憂堂文先生實記(2), 農隱先生實紀(2), 梧村先生實記, 大瑕齋先生實記, 心遠齋先生實記, 一齋先生實紀, 竹軒實記, 稼軒實記, 陽村先生實紀, 梅軒先生實記, 默谷實記, 愚軒實記
	합집		1	1%	聯芳實記
계			91	100%	

이 연구에서는 광의의 문집의 유형을 문집류, 유집류, 실기류로 3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문집류의 경우에는 권수면의 권수제를 보면, <저자의 호 + 先生 + 文集 또는 集>으로 명명하고, 표지면에 씌여진 제목인 표제(表題)는 일반적으로 <저자의 호 + 集 또는 文集>으로 되어있다. 유집류에는 유고・유집・일집(逸集)・일고(逸稿) 등이 포함된다. 유집류의 권수제는 <저자의 호 + 先生 + 遺集 또는 遺稿 또는 逸集 또는 逸稿>로 명명하고, 표제(表題)는 일반적으로 <저자의 호 + 遺集 또는 遺稿 또는 逸集 또는 逸稿>로 명명된다. 실기류의 권수제는 <저자의 호 + 先生 + 實記>로 명명하고, 표제(表題)는 일반적으로 <저자의 호 + 實記>로 명명한다.

www.kci.go.kr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91종의 유형을 보면, <문집 : 유집 : 실기 = 56종(62%) : 20종(22%) : 15종(16%) >의 비율이다. 이로 볼 때 <문집 : 유집+실기 = 56종(62%) : 35종(38%) >로 약 3 : 2의 비율이다. 문집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의 경우 저자 사후 남아있는 글을 수습하여 편찬하는 유집이나 실기도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산청지역에서 간행된 유집 20종을 보면, 서명에 '저자의 호 +逸稿'나 '저자의 호 + 逸集'은 1종도 없고, 17종이 '저자의 호 + 遺稿'이고 3종이 '저자의 호 + 遺集'이다.

일반적으로 문집을 편찬할 때 저자가 생전에 자신의 시문을 정리하여 편차해 놓으면 후손이 사후에 편찬, 간행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가 생전에 자신의 원고를 수습하지 못하고 후손이 사후에 고인의 유고를 수습하여 편차하고 교정을 보아 간행하는 경우에 유집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저자 사후 저자가 남긴 글이 여러 사정으로 전하지 않거나 적게 전하는 경우, 후손들이 타인의 문집 등에서 고인의 글을 모아서 편차하고, 고인의 삶과 학문에 대하여 타인이 쓴 행장・제문・묘갈명 등을 부록으로 편차하고 '실기'라고 명명하는데, 이때에는 부록이 본문의 양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인의 시문을 모은 별집과 2인 이상의 시문을 모은 합집의 비율을 보면, <별집 : 합집 = 87종(96%) : 4종(4%) >의 비율이다. 이로써 거의 대부분의 문집이 1인의 시문을 모은 별집임을 알 수 있다.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가운데 운문인 시(詩)만 모은 시집은 2종(2%)이고, 89종(98%)은 운문인 시(詩)와 산문인 문(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유형을 보면, 문집이 유집과 실기보다 1.5배 많았다. 문집은 대부분 1인의 저작으로 된 별집이고, 내용은 대부분 시와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www.kci.go.kr

3.2 문집의 저자사항 분석

3.2.1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 분석

경남 산청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저자들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인지 알아보기 위해 저자들의 출생연도를 조사하였다.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가 소개되지 않은 경우는 문집 부록의 행장을 통해 출생연도를 찾았다. 문집에 부록이 없어 행장도 없는 경우는 문인록을 통해 알아내기도 하였다.[34]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저자 91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

출생연도	인원(종수)[35]	출생년(인원)
1300-1349	3 (5)[36]	?(1)[37], 1329(1), ?(1)[38]
1350-1399	2(1)	1350(1)/1353(1)
1400-1449	1	1436(1)
1500-1549	3	1540(1), 1543(1), 1547(1)
1550-1599	7(6)[39]	1556(1), 1559(1), 1560(1), 1569(1)/1578(1), 1580(1), 1584(1)
1600-1649	7	1606(1), 1610(1), 1615(1), 1616(1), 1624(1), 1631(1), 1634(1)
1650-1699	3	1679(1), 1680(2)
1700-1749	6	1708(1), 1713(1), 1721(1), 1723(1), 1729(1), 1749(1)
1750-1799	5	1753(1), 1765(1), 1778(1), 1792(1), 1794(1)

34) 양재선의 경우는 문집에 부록이 없어 행장도 없었는데, 노백헌(老柏軒) 문인록의 “梁在善字景賢甲子生南原人有文集居山清鵝湖”라는 기사를 통해 갑자생임을 알 수 있었다. 양재선은 노백헌 정재규(鄭載圭, 1843-1911)의 문인이므로 갑자생이면 그의 출생년은 1864년이 된다.

35) 인원은 2인인데, 간행종수가 1종으로서 인원보다 종수가 적은 이유는 합집이 있기 때문이다.

36) 인원은 3인인데, 종수가 5인 이유는 문익점과 민안부의 실기가 초간본, 중간본 각 2종씩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37) 권한공(?-1349)은 정확한 출생연도를 알 수 없으나 1349년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출생연도

www.kci.go.kr

출생연도		인원(종수)[35]		출생년(인원)
1800-1849	1800-1809	27	0	
	1810-1819		1	1810(1)
	1820-1829		4	1822(1), 1824(1), 1825(1), 1829(1)
	1830-1839		12	1830(3), 1831(1), 1835(4), 1838(3), 1839(1)
	1840-1849		10	1841(1), 1842(1), 1843(2), 1844(2), 1845(1), 1846(1), 1847(1), 1848(1)
1850-1899	1850-1859	27	11	1850(3), 1851(2), 1853(1), 1854(2), 1856(1), 1857(1), 1859(1)
	1860-1869		6	1862(1), 1863(1), 1864(2), 1866(1), 1868(1)
	1870-1879		6	1870(1), 1871(1), 1872(2), 1874(1), 1877(1)
	1880-1889		3	1881(2), 1887(1)
	1890-1899		1	1893(1)
계		91 (91)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저자 91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해 보면, 1300년 전후부터 1893년까지로 거의 600년의 간극이 있다.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은 고려조의 권한공(權漢功, ?-1349)이고, 가장 늦게 출생한 이는 구한말인 1893년(고종 30)에 출생한 박응종(朴膺鍾, 1893-1919)이다. 저자 91인 가운데 고려조 출생인물은 5인이고, 나머지 86인은 1436년(세종 18) 이후에 출생하였다. 91인의 출생연도 분포를 보면, 1830년부터 1859년까지 30년 동안 출생한 인물이 33인으로 전체의 1/3을 차지한다. 1830년부터 1879년까지 50년 동안 출생한 인물은 45인으로 전체의 1/2, 1800년대 출생한 저자는 54인으로 59%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91인의 저자 가운데 54인, 약 60%가 19세기에 출생한 인물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인 27인은 19세기 전반부에 출생하였으므로 19세기에 주로 활동한 인물이고, 19세기 후반부에 출생한 27인은 격동기인 19세기와 20세기,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인물이다. 즉 산청지

는 1300년 전후로 추정되는데, 여기서는 1300년대 초반으로 보았다.

38) 민안부도 정확한 출생연도를 알 수 없으나, 1360년에 문과별시에 등과하였으므로 출생연도는 1300-1349년 사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9) 인원은 7인인데, 종수가 5종으로서 인원보다 종수가 적은 이유는 합집이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역에서 간행된 문집의 저자는 19세기와 20세기의 인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 91인 가운데 고려조 출생인물 5인은『일재선생실기(一齋先生實紀)』의 권한공(權漢功, ?-1349),『삼우당문선생실기(三憂堂文先生實記)』의 문익점(1329-1398),『농은선생실기(農隱先生實紀)』의 민안부(閔安富, 1330-?),『연방실기(聯芳實記)』의 박조(朴調, 1350-1431), 박총(朴聰, 1353-1439)이다. 이 가운데 권한공, 민안부 등은 산청에 입향한 각 성씨의 시조와 관계되는 인물이다.

산청에 거주하는 안동권씨의 현조인 권한공(權漢功, ?-1349)은 고려의 권신(權臣)으로 호는 일재(一齋)이다. 고려 충렬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직사관(直史館)을 지내고 1294(충렬왕 20)년 성절사(聖節使)로 원나라에 다녀왔다. 충선왕이 양위 후 원나라에 가서 만권당(萬卷堂)에서 이제현(李齊賢)과 함께 독서하며 문명(文名)을 떨치기도 했다.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에 이르고 예천부원군(醴泉府院君)에 봉해졌다.『일재선생실기(一齋先生實記)』는 1922년에 권재규가 편차하여 간행하였다.

민안부(閔安富, 1330-?)는 고려말 예의판서(禮儀判書)에 올랐다. 고려가 망하자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벼슬을 버리고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였다가 물러나 산청에 내려와 정착한 산청 여흥민씨의 시조이다. 목활자본 문집『농은선생실기(農隱先生實紀)』는 1830년에 초간본이, 1924년에 중간본이 간행되었다.

3.2.2 저자의 성관(姓貫) 분석

조선후기에는 향촌사회가 집성촌을 이루어 집안에 학문적 역량이 있는 인물이 있음을 증거하는 문집의 간행은 개인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문중의 사업이었다. 산청에서는 어느 문중에서 문집간행이 활발하였는지 파악하고자 저자의 성씨와 관향(貫鄕), 즉 성관(姓貫)을 조사하였다. 산청지역에서 문집 저자의 성관(姓貫)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www.kci.go.kr

<표 5>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저자의 성관(姓貫) 분석

발행종수	성씨	성관	저자명(관향 혹은 종수)
1종	14	경주박씨, 경주이씨, 남양홍씨, 남원양씨, 면천한씨, 성주도씨, 여산송씨, 오천정씨, 진양강씨, 진양하씨, 창녕조씨, 청송심씨, 청주곽씨, 청주한씨	朴民翰, 李東陽, 洪以範, 梁在善, 韓大器, 都敬孝, 宋晌, 鄭碩基, 姜大延, 河兼洛, 曺垣淳, 沈相沇, 郭泰鍾, 韓愉
2종	11	남평문씨, 거창유씨, 경주김씨, 김해김씨, 분성배씨, 순천박씨, 전주최씨, 진양류씨, 함안이씨, 함안조씨, 현풍곽씨	文益漸(2), 劉錫中, 劉錫正, 金永祚(경주), 金宗宇(경주), 金顯玉(김해), 金鳳烈(김해), 裵聖鎬, 裵世謙, 朴而章, 朴奎燦, 崔植民, 崔源肅, 柳之遠, 柳宜貞, 李仁亨, 李祥圭, 趙善道, 趙輝晋, 郭世楗, 郭裔
3종	1	전의이씨	李敎宇, 李纘植, 李熙采
5종	1	상산김씨	金聲鐸, 金景謹, 金湛, 金碓, 金鎭祜
7종	1	여흥민씨	閔安富(2), 閔百忠, 閔致完, 閔東爀, 閔致亮, 閔致琮,
8종	1	밀양박씨	朴調;朴聰, 朴來吾, 朴致馥, 朴東奕, 朴尙台, 朴熙珥, 朴膺鍾, 朴圭浩
9종	1	성주이씨	李秉烈, 李志容, 李若烈, 李佑贇, 李道禎, 李道默, 李道樞, 李鎬根, 李瑾相
23종	1	안동권씨	權相迪, 權侃, 權漢功, 權濮;權濬, 權克亮, 權重道, 權壽鵬, 權煒, 權必稱, 權章煥, 權在奎, 權憲璣, 權相杜, 權奎集, 權載斗, 權雲煥, 權基德, 權相龜, 權麒煥, 權載奎, 權鳳鉉, 權正容, 權載惇
91종	31		

위 <표 5>에서 보듯이, 산청지역에서 목활자로 간행된 문집 저자의 성관을 파악해 본 결과,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모두 31개 성씨로서, 한 성씨가 적게는 목활자본 문집을 1종부터 많게는 23종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1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경주박씨 등 14개 성씨이고, 2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남평문씨 등 11개 성씨이다. 3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전의(全義)이씨, 5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상산(商山)김씨, 7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여흥(驪興)민씨, 8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www.kci.go.kr

성씨는 밀양(密陽)박씨, 9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성주(星州)이씨, 23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안동(安東)권씨로서 전체 91종 가운데 1/4인 25%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볼 때 31개 성씨 가운데 25개(80%) 성씨가 문집 1-2종씩 총 37종, 즉 40%의 문집을 간행하였고, 6개(20%) 성씨가 60%(55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청에서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은 안동권씨, 성주이씨, 밀양박씨, 여흥민씨, 상산김씨 등 5개 성씨는 5종 이상의 문집을 간행하여 성씨에 따른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청에서 가장 많은 23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안동권씨는 우천공(愚川公)파 후손으로 산청군 단성면 강루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40] 문집의 저자의 활동시기를 보면, 14세기 고려시대의 인물인 권한공(權漢功, ?-1349)부터 현대의 인물인 권재규(1870-1952)까지 600여 년간에 걸쳐있다. 하지만 간행연도를 보면, 1895년부터 1954년까지 59년간 23종의 문집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산청의 안동권씨 문중에서는 산청의 입향조라 할 수 있는 권집(權潗)과 권준(權濬)의 형제의 합집인『연방집록(聯芳輯錄)』이 가장 빠른 1895년에 10세손 권봉희(權鳳熙)에 의해 간행되었다. 권집(1569-1633)은 한강 정구 문인으로 1601년 생원시에, 1612(광해군 4)년에 문과 병과 2인으로 급제하였다. 권준(1578-1642)도 한강 정구의 문인으로 1613(광해군 5)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전적(典籍)이 되었으나, 그때 정치가 어지러워 형제가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인조반정 후에 형조좌랑을 거쳐 그 뒤 삼척・광주・파주 등지의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잘 다스려 치적이 뛰어나 안팎에서 표창하였다.[41] 산청군 단성면 강루리에 살고 있는 안동권씨는 상암 권준(權濬)의 후예들이다. 상암 권준의 아들 우천(愚川) 권극유(權克有)는 덕천서원 원장을 지냈으며,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산청군 단성면 강루리에서 학맥을 이어오고 있다.

서주(西州) 권장환(權章煥, 1830-1889)은 우천(愚川) 권극유(權克有)의 9대 종손으로 순조 30년 단성 강루리에서 출생하여 일생동안 우암(尤庵) 송시열(宋

40) 조선시대 이 마을에 신안루(新安樓)가 있었기 때문에 '강루(江樓)'라고 부른다고 한다.
41) 조계찬, "권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www.kci.go.kr

時烈)을 흠모하고 1889(고종 26)년 60세에 학행으로 추천받아 통사랑 수봉관에 제수되었다.

석우(石愚) 권재두(權載斗, 1851-1913)는 우천 권극유의 10대종손으로 서주 권장환의 장자로 단성 강루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암 송시열의 학문을 따르는 것이 가학(家學)임을 강조하면서 빼어난 학행으로 아우 권재규와 더불어 명성을 날렸다.

권장환의 둘째아들이며 권재두의 아우인 송산(松山) 권재규(權載奎, 1870-1952)는 단성 강루리 교동(校洞)에서 태어났다. 권재규는 10대 때부터 노사 기정진의 학문을 계승한 계남(溪南) 최숙민(崔琡民)에게 나가 학문을 연마했으며, 20세부터는 계남과 동문인 합천의 노백헌(老柏軒) 정재규(鄭載圭)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으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학문을 전수받았다. 30세 때 경기도 포천으로 가서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을 찾아뵈었다. 1901년 목판본『노사선생문집(蘆沙先生文集)』중간을 위해 당시 노론계열의 영호남 거유인 월고(月皐) 조성가(趙性家), 노백헌 정재규, 농산(農山) 정면규(鄭冕圭), 일신 이의림, 계남 최숙민, 송사 기우만 등이 산청의 신안정사에 모였는데, 권재규도 이에 참여하였다. 중국 신안(新安)에 있는 주자의 사당을 본받아 안동권씨와 성주이씨가 강루리에 노론의 주요 거점인 신안정사(新安精舍) 건립을 주도하면서 명사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경상우도 지역은 어느 때보다 많은 유학자들이 배출되었다. 노백헌 정재규와 그의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기정진의 학설을 계승하였는데, 이 중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 송산 권재규이다.

경상우도 지역은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몰락하면서 남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었고, 무신란 이후 서인이 증가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주로 노론 가문의 인물이 기정진의 문인이 되었으니, 단성에서 남명 조식과 상암 권준의 후손, 산청에서는 농은 민안부의 후손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 노사학파(蘆沙學派) 인물들은 주희와 송시열의 영정을 모신 신안정사에서 자주 회합을 하였다. 권재규는 1914년부터 강학활동에 전념하여 많은 문도를 배출하였으며, 또한 위정척사사상을 철저히 실천하여 일제치하에서도 일제 정책을 따르지 않고 공맹(孔孟)과 정주(程朱)의

www.kci.go.kr

도를 우선하였다.[42]

이를 볼 때 산청군 단성면 강루리의 안동권씨 문중의 학문적 경향은 권집과 권준이 정구(鄭逑) 문인이므로 퇴계학과 남명학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정계에서 퇴출됨에 따라 무신란 이후 송시열을 흠모하는 노론 가문이 되었다. 19세기에 노사 기정진의 가르침을 받음에 따라 권재규를 중심으로 노론의 노사학이 확산되었으며, 단성면 강루리에 안동권씨와 성주이씨가 주도적으로 건립한 신안정사가 그 중심점 역할을 하였다.

9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산청의 성주이씨는 단성면 남사리에 정착하였다. 조선조 단종복위사건으로 처형당한 성삼문의 이모부인 이숙순(李叔淳)이 위협을 느끼고 이곳으로 내려오면서 성주이씨가 이곳에 자리잡았다. 이숙순은 조선 개국공신이자 태조 이성계의 부마인 이제(李濟)의 손자이다. 병자호란 때에는 박승희와 박승필이 이곳으로 피란하면서 8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밀양박씨가 자리잡았다.

7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여흥민씨(驪興閔氏)는 산청군 생초면 대포리(大浦里)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고려 멸망후 예의판서 농은(農隱) 민안부(閔安富)가 조선조의 벼슬을 거부하고 은둔해 살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여흥민씨들의 600여 년 세거지이다. 이 대포리 마을 용강(龍崗) 뒷산 언덕에는 농은의 13세손 되는 괴헌(槐軒) 민수(閔銖)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그의 다섯 아들이 세운 오의정(五宜亭)이 우뚝 자리하고 있다. 대포리에는 오의정 이외에 대포서원(大浦書院), 숭의재(崇義齋), 쌍매헌(雙梅軒), 관란재(觀瀾齋), 숙로정(宿鷺亭) 등 유구한 역사를 지닌 유적이 산재해 있다.

5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산청의 상산김씨(商山金氏)는 산청군 신등면 법물리에 집성촌으로 이루며, 강우지역 유학의 맥을 조선 말기까지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마을 입구에 입향조(入鄕祖)인 '단구재 김선생 사적비(丹邱齋 金先生事蹟碑)'가 서 있는데, 단구재 '김후(金後)'는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하였

42) 김봉곤, "松山 權載奎의 蘆沙學 繼承과 嶺南地域에서의 活動,"『南冥學硏究(南冥學會)』 제34집(2012), 37-76.

www.kci.go.kr

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이곳 법물에 정착을 하였으며, 두문동 72인 중 한 사람으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켰기에 오늘날까지도 후손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단구재 이후 이 마을에서는 많은 선비들이 배출되었다. 강우 지역의 학맥을 이은 기라성 같은 선비들이 이 마을에서 활동을 했는데, 물천(勿川) 김진호(金鎭祜)는 한말 강우학맥의 대표적 학자로 지역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산청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는 상당수가 고려가 망하자 혹은 계유정란 이후, 혹은 임병 양란을 당하여 지리산 아래로 은둔한 사대부의 후손으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산청은 남명 조식이 만년에 산천재를 지어 제자를 양성했던 남명학의 본거지였다. 남명 조식과 남명학통을 잇는 제자들의 문집은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산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 91인 가운데 남명학의 학통을 잇는 저자는 없었다. 남명 조식과 남명학통을 잇는 덕계 오건, 노론 학통을 잇는 노사 기정진, 기호 남인학통을 잇는 성재 허전, 한주 이진상의 학통을 잇는 면암 곽종석의 경우처럼 성리학의 도통(道統)을 잇는 전국적인 명망가의 문집은 산청에서 목판으로 판각되었다. 산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한 지식인, 즉 향유(鄕儒)라고 할 수 있다.

목활자본 문집 저자들의 학문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승관계를 보면, 남명 조식이 산천재에서 강학했던 관계로 남명의 제자들이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면, 우암 송시열을 흠모하거나 노사 기정진의 가르침을 받은 노론계열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기호 남인인 성재 허전의 제자도 있었다.

3.3 문집의 간행사항 분석

3.3.1 간행소 분석

산청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어디에서 간행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간기나 판권지의 간행소를 조사해 보니 다음 <표 6>과 같았다.

www.kci.go.kr

<표 6>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소

구분	종수	%	간행소(서명)
재실	11	35.5	蒙泉齋(麴巖先生文集, 菊坡遺稿), 錦溪齋(錦石文集), 永慕齋(南皐先生文集, 月圃集), 文山齋(南窓集), 思孝齋(某堂集), 致一齋(思窩先生文集), 學而齋(梅軒先生實記), 新安思齋(三憂堂文先生實記), 隱樂齋(孤松先生遺集)
개인집	5	16.1	姜聖鎬方(恒窩集), 閔龜植家(稽樵文集, 芝岡文集), 沈鶴燮方(花溪風謠), 梁定鉉家(文山遺稿)
당	5	16.1	麗澤堂(晩醒集, 大瑕齋先生實記), 如在堂(望賢齋先生文集), 愚溪堂(愚軒實記), 信古堂(謙窩遺藁)
누정	3	9.7	香亭(東山先生文集), 望楸亭(沙村先生文集, 易堂稿)
정사	3	9.7	新溪精舍(新溪集), 石東精舍(梧岡文集), 浣溪精舍(咸齋遺稿)
서당	2	6.5	勿川書堂(勿川先生文集附錄), 文山書堂(春坡藁)
서사	1	3.2	新安書社(一齋先生實紀)
서원	1	3.2	平川書院(心遠齋先生實記)
계	31	100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91종 가운데 인기나 판권지가 있는 31종의 문집에 나타난 간행소를 분석하면, 재실(齋室) 11종, 개인집 5종, 당(堂) 5종, 누정(樓亭) 3종, 정사(精舍) 2종, 서당(書堂) 2종, 서사(書社) 1종, 서원(書院) 1종의 순으로 재실이 가장 많고, 다음이 개인집과 당의 순서이다. 이는 영남 간행 목활자본 총 719종 가운데 간행장소 확인이 가능한 379종 대상 분석하여 나타난 재실(111), 개인집(88), 누정(53), 당(45), 정사(21), 서당(20), 보소(譜所)[43](14), 서원(8)의 순서[44]와 누정과 당의 순서가 바뀌었을 뿐 거의 동일하다.

재실은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으로,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숙식과 제사음식 장만, 음복(飮福), 망제(望祭)를 지내는 곳이다.[45] 즉 현조(顯祖)의 묘제(墓祭)나 시사(時祀)를 준비하거나 지내는 제향공간인 재실에

43) 족보 간행소.

44) 송정숙, “조선시대 영남의 목활자본 연구,” 大東漢文學會 全國學術大會 2015年 秋季學術大會,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2015.10.30.

45) 두산백과, “재실”, 2016.10.29.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8896&cid=40942&categoryId=33084>

www.kci.go.kr

서 문중에 학문이 있음을 드러내는 문집 간행이 조선 후기에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청에서 목활자본 문집이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 재실은 蒙泉齋(麴巖先生文集, 菊坡遺稿), 錦溪齋(錦石文集), 永慕齋(南皐先生文集, 月圃集), 文山齋(南窓集), 思孝齋(某堂集), 致一齋(思窩先生文集), 學而齋(梅軒先生實記), 新安思齋(三憂堂文先生實記), 隱樂齋(孤松先生遺集)의 9곳이다.

누정(樓亭)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룻바닥을 지면에서 한층 높게 하고 벽이 없이 지은 집으로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46]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신증동국여지승람』누정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정은 누(樓)·정(亭)·당(堂)·대(臺)·각(閣)·헌(軒) 등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누정은 휴식과 사교 공간 외에 선현 추모와 학문 연마, 자손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었으니, 씨족끼리의 종회(宗會)나 마을 사람들의 동회(洞會), 각종 계(契)모임이 이루어졌다. 집안 사람들이 모이는 종회가 열리던 누정에서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이루어졌다. 산청에서 목활자본 문집이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 누정은 당을 포함하여 香亭(東山先生文集), 望楸亭(沙村先生文集, 易堂稿), 麗澤堂(晩醒集, 大瑕齋先生實記), 如在堂(望賢齋先生文集), 愚溪堂(愚軒實記), 信古堂(謙窩遺藁)의 6곳이다.

이처럼 산청 지역에서 목활자본 간행이 목판본과 달리, 지방의 사찰이나 서원이 아닌 주로 문중에서 선현의 제향공간인 재실이나 종가 등의 개인집, 혹은 당이나 누정 등에서 간행되었음 볼 때 목활자본 간행은 혈연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남명 조식을 모신 덕천서원이나 강학하던 산천재, 덕계 오건을 배향한 서계서원 등 남명 관련 유적지에서 간행한 목활자본이 1종도 없다는 것은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가 남명의 학통을 계승하는 높은 제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인조반정 이후 북인의 정치적 몰락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산청에서 목활자본이 간행된 시기가 1850년 이후인데, 이 시기 산청의 학문적 경향은 권재규가 노사 기정진에게 수학함으로 확연히 드러나듯이 노론의 학풍을 지향했다. 이는 강루리의 신안정사에서 노사 기정진의 문집인『노사선생문집(蘆沙先生

46) 이갑규, 김신곤, 김봉규,『한국의 혼 樓亭』(서울: 민속원, 2015), 11.

www.kci.go.kr

文集)』을 목판으로 판각한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기호 남인의 학통을 잇는 성재 허전의 문인들이 1891년에 세운 재실인 신등면 평지리의 이택당(麗澤堂)[47]에서는 김경근(金景謹)의 『대하재선생실기(大瑕齋先生實記)』와 『성재선생문집』 간행을 주도했던 박치복(朴致馥)의 『만성집(晩醒集)』을 1896년에 이택당 소장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이를 볼 때 산청의 학문적 분위기는 덕천서원과 산천재를 중심으로 남명 조식 학통이 이어져 오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신안정사를 중심으로 노사 기정진의 노론의 학통과 이택당을 중심으로 성재 허전의 남인의 학통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하재 김경근은 남명 조식의 제자인 각재(覺齋) 하항(河沆)에게 학문을 익혔다. 김경근이 교유한 인물로는 일신당(日新堂) 이천경(李天慶), 사호(思湖) 오장(吳長), 오월당(梧月堂) 이유함(李惟諴) 등이다. 『대하재선생실기』의 권두에 1867년에 성재(性齋) 허전(許傳, 1797-1886), 1868년에 만성(晩醒) 박치복(朴致馥, 1824-1894), 1896년에 단계(端磎) 김인섭(金麟燮, 1827-1903)이 지은 서문 3편이 차례로 실려 있는데, 이들은 30년 사이에 지어졌다. 따라서 이 실기는 1867년에 착수하여 1896년경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재 허전은 단계 김인섭의 스승이고, 만성 박치복은 물천(勿川) 김진호(金鎭祜, 1845-1908)의 스승이다. 또 이 실기 말미에 '丙申仲冬 麗澤活印'이라는 간기가 있으니, 1896년 겨울 이택당에서 목활자로 인쇄했음을 알 수 있다.

단계 김인섭은 김경근의 종8대손이고, 물천 김진호는 김경근의 종10대손이다. 또 책의 말미에 1896년 물천 김진호, 학산(鶴山) 박장대(朴尙台), 김경근의 종11세

47) 이택당(麗澤堂)은 현 경남 산청군 신등면 평지리에 있는데, 조선 헌종・철종・고종의 3대에 걸쳐 이조판서를 지낸 성재 허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문인들이 1891년(고종 28)에 세운 재실이다. 부속건물로 물산영당과 장판각(藏板閣)이 있다(산청군 문화공보실 편(1982), 98-99). 『性齋先生文集』에는 『士儀』・『宗堯錄』이 수록되어 '철명편(哲命篇)'과 함께 판각(板刻)된 책판 744매가 장판각에 보존되어 있다(문화재청,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65호 여택당소장문집책판(麗澤堂所藏文集册板)," 2016.10.25.접속).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21,01650000,38>

www.kci.go.kr

손 김상순(金象淳)이 지은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 책은 김인섭이 간행을 도모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대에 김진호에 의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진호는 김경근의 시문 및 묘갈명을 편집하여 1896년 이택당의 목활자를 이용해 『대하재선생실기』를 간행하였다.[48]

만성(晩醒) 박치복(朴致馥 1824-1894)의 문집인 『만성집』은 박치복의 아들 박희선(朴熙善)이 난고(讕稿) 및 유문을 정리하였으나 격심한 사회적 혼란 속에 단질(單帙)의 초본이 망실될 것을 염려하여 약간 권의 고본(稿本)을 후산(后山) 허유(許愈)와 교감하여 1896년 단성(丹城) 이택당에서 목활자로 13권 6책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이후 저자의 종자 박정선(朴正善)은 연보를 당대의 명사들에게 광정하여 완성하고 노상직(盧相稷), 조긍섭(曺兢燮), 이용구(李容九)로부터 행장과 묘도문자를 받은 뒤에 문집을 원집 16권 부록 2권으로 수정하여 저자의 사손 박영철(朴永喆) 등과 함께 1925년 달성(達城)의 광거당(廣居堂)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49] 이때 지식정보의 임시보존용으로 목활자인쇄가, 영구보존용으로 목판인쇄가 이용됨을 볼 수 있다. 이처럼 1896년 이택당에서 『대하재선생실기』와 『만성집』이 함께 간행되었다.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목활자본 문집이 같이 간행된 사례가 있으니, 단성면 사월리 밀양박씨 문중의 재실인 망추정(望楸亭)에서 박규호(朴圭浩, 1850-1930)의 사후 3년만에 그의 『사촌선생문집(沙村先生文集)』을 간행할 때 박응종(朴膺鍾, 1893-1919)의 『이당고(易堂稿)』를 함께 간행하였다. 생초면 대포리의 여흥민씨 민구식가(閔龜植家)에서는 민안부의 후손인 민치량(閔致亮, 1844-1932)[50] 사후

48) 남명학고문헌시스템, “대하재실기 해제,” 2016.9.27.접속, <http://nmh.gsnu.ac.kr/jsp/search/search_haeje.jsp?id=GBY6_ZZZK_DHJ035_AH001&mid=02&search_word=%3F%3F%3F%3F%3F&flag=all&tableName=MCG_HAEJE&searchType=simple&gubun_image=&gubun_check=&list_limit=&pg=&asc=&orderby=&author=>

49)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속136집, “『만성집』 해제,” 2016.10.26.접속, <http://www.itkc.or.kr/itkc/post/PostServiceList.jsp?menuId=M0452&clonId=POST0003>

50) 『嶠南誌』 卷54 山淸郡. “閔致亮 安富后號稽樵文正言有文集.”

www.kci.go.kr

2년만에 그의『계초문집(稽樵文集)』을 간행할 때 형 민치완(閔致完, 1838-1911)의『지강문집(芝岡文集)』을 함께 간행하였다.

3.3.2 간행년 분석

문집의 간행연도는 간행기록인 간기와 1909년 출판법 공포 이후 간행된 책으로 판권지가 있는 경우는 이를 통해 간행연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간행기록이 없더라도 서문이나 발문이 있는 경우는 서문이나 발문 가운데 가장 최후에 작성된 서문이나 발문의 작성연도를 통해 간행년도를 추정하였다. 서문이나 발문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간행연도를 추정하기 어려워 미상으로 남겨두었다. 91종 가운데 2종이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간행년 미상으로 처리되었다.

경남 산청지역에서 목활자로 간행된 문집 91종의 간행년을 분석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년

간행연도	종수 (%)	간행년(종수)
1830-1839	1 (1.1%)	1830(1)
1840-1849	0	
1850-1859	1 (1.1%)	1852(1)
1880-1889	0	
1890-1899	10 (11%)	1893(1), 1895(1), 1896(2), 1897(3), 1898(1), 1899(2)
1900-1909	12 (13.2%)	1900(1), 1901(1), 1902(2), 1908(1), 1909(7)
1910-1919	10 (11%)	1910(3), 1911(1), 1912(2), 1915(1), 1916(3)
1920-1929	16 (17.6%)	1920(1), 1921(1), 1922(5), 1923(2), 1924(1), 1925(4), 1927(1), 1929(1)
1930-1939	23 (25.3%)	1930(1), 1932(2), 1933(4), 1934(4), 1935(2), 1936(5), 1937(1), 1938(1), 1939(3)
1940-1949	7 (7.7%)	1940(1), 1942(2), 1943(1), 1946(1), 1947(2)
1950-1959	3 (3.3%)	1953(1), 1954(1), 1959(1)
1960-1969	4 (4.4%)	1960(2), 1962(1), 1965(1)
미상	2 (2.2%)	미상(2)
계	91 (100.0%)	

www.kci.go.kr

위 <표 7>에서 보듯이, 경남 산청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91종은 1830년부터 1965년까지 135년 동안 간행되었다. 가장 많이 간행된 시기는 23종(25%)이 간행된 1930년대이고, 다음은 16종(18%)이 간행된 1920년대, 12종(13%)이 간행된 1900년대, 10종(11%)이 간행된 1890년대와 1910년대의 순이다.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50년 동안에 71종(78%)이 간행된 것을 볼 때, 목활자라는 인쇄 수단을 통해 지방 지식인들의 사상과 문학이 활발하게 확산되었던 시기는 조선조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였음을 알 수 있다.

산청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18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여 계속 증가하다가 1930년대에 정점을 이루고 1940년대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1940년대 이후 전통적인 목활자 인쇄에 비해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드는 석판인쇄나 신연활자 인쇄술이 대중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산청에서 목활자로 가장 먼저 간행된 문집은 1830년에 간행된 고려말기 충신으로 두문동 72현 중의 한 사람으로 산청 여흥민씨의 시조가 된 농은(農隱) 민안부(閔安富)의 『농은선생실기(農隱先生實紀)』이다. 『농은선생실기』는 1924년에 중간되었다. 초간본은 3권1책이고, 중간본은 4권1책이다.

두 번째로 일찍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은 1852년에 간행된 삼우당(三憂堂) 문익점(文益漸, 1329-1398)의 『삼우당문선생실기(三憂堂文先生實記)』이다. 이도 초간본은 1851년에 4권2책으로, 중간본은 1900년에 6권3책으로 신안사재(新安思齋)에서 인출되었다.

3.3.3 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 분석

산청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이 저자 사후 몇 년 만에 간행되었는지, 즉 저자 사후 문집 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www.kci.go.kr

<표 8> 저자 사후 문집 간행 소요기간

저자 사후 소요기간		종수 / %				기간(종수)
사후1-50년	사후 1-10년	48	52.7%	25	28.1%	1(5), 2(3), 3(4), 4(2), 5(3), 6(3), 7(3), 9(2)
	사후 11-20년			9	10.1%	11(1), 12(4), 14(1), 15(1), 16(2)
	사후 21-30년			5	5.6%	22(1), 23(2), 24(1), 25(1)
	사후 31-40년			3	3.4%	32(1), 33(1), 36(1)
	사후 41-50년			6	6.7%	42(2). 46(1), 48(1), 49(1), 50(1)
사후 51-100년		8		8.8%		51(1), 53(1), 59(1), 63(1), 74(1), 89(1), 98(1), 99(1)
사후 101-150년		6	10	6.6%	11%	107(1), 108(1), 123(1), 126(1), 131(1), 147(1)
사후 151-200년		4		4.4%		154(1), 173(1), 176(1), 199(1)
사후 201-250년		6	14	6.6%	15.4%	207(1), 211(1), 213(1), 216(1), 236(1), 250(1)
사후 251-300년		8		8.8%		253(1), 271(1), 278(1), 289(1) 290(1), 291(1), 292(1), 299(1)
사후 301-350년		1	1	1.1%	1.1%	306(1)
사후 351-400년		0				
사후 401-450년		1	3	1.1%	3.3%	432(1)
사후 451-500년		2		2.2%		453(1), 477(1)
사후 501-550년		1	2	1.1%	2.2%	502(1)
사후 551-600년		1		1.1%		573(1)
미상		5		5.5%		?(5)
계		91		100%		

산청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이 저자 사후 몇 년 만에 간행되었는지 궁금하여 사후 문집 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하였다. 91종의 목활자본 문집 가운데 저자 생전에 간행된 문집은 1종도 없었다. 전체 91종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48종이 사후 50년 이내에 간행되었다. 사후 10년 이내에 전체의 28%인 25종, 11년부터 20년 사이에 10%인 9종이 간행되어 저자 사후 20년 이내에 38%인 34종,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는 53%인 48종, 저자 사후 100년 이내에는 61%인

www.kci.go.kr

56종, 저자 사후 200년 이내에는 73%인 66종, 저자 사후 300년 이내에는 88%인 80종이 간행되었다. 소요기간을 알 수 없는 5종을 제외하면, 86종 가운데 94%인 81종의 문집이 저자 사후 300년 이내에 간행되었다.

이로 볼 때 문집은 저자 사후 이듬해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여 50년 이내에 과반수가 간행되고, 사후 300년 이내에는 대부분 간행되었다. 저자 사후 570년에도 간행되는 것으로 보아 저자의 생존시기와 관계없이 후손이 기억하고 지역사회에 선양할 현조가 있다면 집안의 학문적 능력을 증거하는 문집간행은 한 집안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저자 사후에 문집 편찬과 간행을 주도하는 인물은 저자 사후 50년까지는 주로 아들이나 동생 혹은 문인, 사후 100년까지는 주로 손자, 그 이후는 후손이나 집안의 문장가들이 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 사후 이듬해에 간행된 이근상(李瑾相)의 『풍호유고(豊湖遺稿)』는 1922년에 아들 이병식(李炳軾)이, 저자 사후 16년 만에 간행된 이희채(李熙采)의 『낙우당집(樂愚堂集)』은 1942년에 아들 이교욱(李敎旭)이, 저자 사후 50년만에 간행된 권장환(權章煥)의 『서주유고(西洲遺稿)』는 1939년에 아들 권재규(權載奎)가 편찬하여 간행을 주도하였다. 사후 253년만에 간행된 권집(權濮, 1569-1633)과 權濬(1578-1642)의 『연방집록(聯芳輯錄)』은 1895년에 10세손 權鳳熙에 의해, 사후 289년만에 간행된 박이장(1547-1622)의 『용담집(龍潭集)』은 1911년에 9세손 朴寅鉉에 의해, 사후 573년 만에 간행된 권한공(權漢功, ?-1349)의 『일재선생실기(一齋先生實紀)』는 집안의 문장가인 권재규가 주도적으로 편찬 간행하였다.

문집 간행에 소요되는 기간과 문집의 유형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집 유형별 저자 사후 간행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www.kci.go.kr

<표 9> 저자 사후 문집 간행 소요 기간: 문집 유형별

저자 사후 문집 간행 소요기간		종수 / %				문집	유집	실기
사후 1-50년	사후 1-10년	49	53.8%	26	28.6%	20	6	
	사후 11-20년			9	9.9%	6	2	1
	사후 21-30년			5	5.5%	2	2	1
	사후 31-40년			3	3.3%	2	1	
	사후 41-50년			6	6.6%	3	3	
소계						33	14	2
사후 51-100년		7		7.7%		7		
사후 101-150년		6		6.6%		5	1	
사후 151-200년		4		4.4%		2		2
사후 201-250년		6		6.6%		2	2	2
사후 251-300년		8		8.8%		6	1	1
사후 301-350년		1		1.1%				1
사후 351-400년		0						
사후 401-450년		1		1.1%				1
사후 451-500년		2		2.2%				2
사후 501-550년		1		1.1%				1
사후 551-600년		1		1.1%				1
미상		5		5.5%		1	2	2
계		91		100%		56	20	15

문집 유형별 저자 사후 간행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문집은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56종 가운데 54%인 33종이, 유집은 20종 가운데 70%인 14종이, 실기는 15종 가운데 13%인 2종이 간행되었다. 실기는 저자 사후 150년 이후에 15종 가운데 87%인 13종이 간행되었다. 문집과 유집은 사후 10년 이내가 가장 많지만 사후 300년까지 지속되는데 비해, 실기는 대다수가 사후 150년 이후 570년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이처럼 실기는 저자의 생존 시기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고 난 뒤 편찬하려고 하니, 저자의 글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실기의 형태로 편찬・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3.3.4 인쇄자 분석

산청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누가 인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판권기의 인쇄자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목활자본 문집의 인쇄자 분석

지역(인원)	인쇄자명	종수	%	서 명
산청(9)	강성호	1		望賢齋先生文集
	권동혁	1	5.9%	无爲子先生遺集
	권우용	6	29.4%	謙窩遺藁, 某堂集, 恒窩集, 沙村先生文集, 咸齋遺稿, 易堂稿
	배영대	1	5.9%	錦石文集
	심광섭	1	5.9%	梧岡文集
	심상복	1	5.9%	一齋先生實紀
	심학섭	2	11.8%	花溪風謠, 文山遺稿
	이병직	1	5.9%	新溪集
	조민순	1	5.9%	春坡藁
진주(2)	김영규	1	5.9%	勿川先生文集附錄
	안정식	1	5.9%	梅軒先生實記
함양(1)	마인섭	2	11.8%	稽樵文集, 芝岡文集
12인	계	19종	100%	

목활자 인쇄자인 각수는 목활자를 지고 다니면서 책을 발행하고자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책을 조판하여 인출했던 이동식 출판업자이다. 91종의 목활자본 문집 가운데 판권기가 있는 문집은 19종이며, 각수는 위 <표 10>과 같이 12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각수 12인 가운데 산청에 거주하는 각수가 9인(75%)이나 되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심상복(沈相福, 1876-1951)은 목활자의 글씨를 직접 썼으며, 심학섭(沈學燮)은 장남이다.[51] 이를 볼 때 각수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라 출판 기능을 겸비한 지식인으로 본인이 한자를 직접 써서 판각하여 목활자를 만들어 놓고 대를 이어 출판사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1) 국립진주박물관 편, 『'특별전 산청' 전시도록』 (진주: 국립진주박물관, 2011), 143.

www.kci.go.kr

산청은 영남에서 목활자본 출판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며, 동시에 공급자인 각수도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52] 목활자본 출판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산청은 책 출판에 필요한 종이의 재료인 닥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으로 목활자 출판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풍부했던 지역이었다. 이로써 전통사회에서 산청 지역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 즉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3.4 문집의 형태사항 분석

3.4.1 권책수 분석

산청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의 형태사항 가운데 권책수가 문집의 유형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집의 권책수와 문집의 유형, 즉 문집, 유집, 실기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문집 권책수와 문집 유형과의 관계 분석

책수	권책수	전체	문집	유집	실기	비고(서명)
		종수	종수	종수	종수	
1책	불분권1책	2	1			
	2권1책	20	6	9	5	
	3권1책	18	9	4	5	
	4권1책	3	1		2	
	5권1책	1		1		橘下遺稿
	6권1책	1	1			汲古齋先生文集
	소계	45(48.9%)	18(32.1%)	14(70%)	12(80%)	
2책	2권2책	1			1	心遠齋先生實記
	3권2책					
	4권2책	11	7	3	1	
	5권2책	7	5	2		
	6권2책	1	1			某堂集
	소계	20(21.7%)	13(23.2%)	5(25%)	2(13.3%)	

52)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506종 가운데 판권기에 인쇄자가 표기되어 있는 295종을 대상으로 목활자 인쇄자, 즉 각수의 출신지역을 분석했을 때, 경상도에서 38개 지역출신 162명의 각수가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산청지역 출신 각수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송정숙(2002), 57-59).

www.kci.go.kr

책수	권책수	전체	문집	유집	실기	비고(서명)
		종수	종수	종수	종수	
3책	5권3책	1	1			新溪集
	6권3책	5	4		1	
	7권3책	4	4			
	8권3책	3	3			
	9권3책	1	1			湖上趾美錄
	소계	14(15.2%)	13(23.2%)		1(6.6%)	
4책	7권4책	1	1			訥窩文集
	8권4책	1	1			南川先生文集
	소계	2(2.2%)	2(3.6%)			
5책	9권5책	1	1			月淵集
	10권5책	2	1	1		
	11권5책	1	1			稽樵文集
	12권5책	1	1			尼溪集
	소계	5(5.4%)	4(7.1%)	1(5%)		
7책	15권7책	1	1			惠山集
9책	16권9책	1	1			晩醒集
10책	19권10책	1	1			明湖文集
15책	28권15책	1	1			果齋先生文集
16책	32권16책	1	1			愚山集
24책	46권24책	1	1			而堂先生文集
	소계	6(6.6%)	6(10.7%)			
계		91종	56종	20종	15종	

위 표에서 보듯이 문집의 유형에 따라 권책수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실기를 보면, 15종 가운데 12종(80%)이 1책으로 2권1책(5종), 3권1책(5종), 4권1책(2종)으로 실기는 2/3가 2권1책 혹은 3권1책이다. 이 경우에 권1은 저자의 글이고, 그 외에는 대개 타인의 저자에 대한 전기적인 글이다. 유집을 보면, 20종 가운데 14종(70%)이 1책이고, 5종(25%)이 2책이며, 10권5책이 1종 있다. 유집의 95%가 1~2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집은 56종 가운데 18종(32%)이 1책, 13종(23%)이 2책으로 1~2책이 31종으로 문집의 55%를 차지한다. 문집은 유집이나 실기와 달리 3책 이상이 25종(45%)으로 나타났다. 5책 이상의 거질의 문집도 10종이나 된다.

www.kci.go.kr

이처럼 문집은 유집이나 실기에 비해 권책이 방대한 경우가 많았다. 유집은 여러 이유로 저자의 시문이 산일되어서, 실기는 저자 사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서 남아 있는 글이 적으므로 1책이 많았다.

3.4.2 판식 분석

산청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91종이 간행 시기에 따른 판식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1800년대부터 50년 단위로 판식의 형식을 살펴보니,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시기와 판식과의 관계 분석

50년 단위	종수	변란(종수)	계선	행자수(종수)	어미(종수)[53]
1801-1850	2	四周單邊(2)	有界	10行 20字(2)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上二葉花紋魚尾
1851-1900	12	四周單邊(10), 四周雙邊(2)	有界	10行 18字, 10行 19字, 10行 20字(4), 10行 21字(2), 10行 22字(2), 11行 22字(2)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9),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2), 上二葉下一葉花紋魚尾
1901-1950	68	四周單邊(12), 四周雙邊(55), 上下雙邊	有界	8行 18字, 10行 8字(11), 10行 20字(47), 10行 21字(5), 10行 22字(2), 10行 23字, 11行 22字	上三葉花紋魚尾(3), 上二葉花紋魚尾(21),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41),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上下白魚尾, 混葉花紋魚尾
1951- 2000	7	四周雙邊(7)	有界	10行 20字(6), 10行 22字	上一葉花紋魚尾, 上二葉花紋魚尾(6)
미상	2	四周雙邊(2)	有界	10行 18字, 10行 20字	上二葉花紋魚尾(2)

www.kci.go.kr

위 <표 12>에서 보듯이,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91종의 판식을 간행시기에 따라 구분한 결과, 1800년대에는 四周單邊, 유계, 10行 20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가 다수이고, 1900년대 전반기에는 四周雙邊, 유계, 10行 20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1900년대 후반기에는 四周雙邊, 유계, 10行 20字, 上二葉花紋魚尾가 다수이다.

이를 볼 때, 전반적으로 항자수는 간행연대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 반면 사주변란과 어미는 간행연대에 따른 경향이 나타난다. 1900년대 들어서면 四周雙邊이 증가하고, 1950년대 이후에는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가 눈에 띄지 않고 上二葉花紋魚尾가 대세이다.

4. 맺음말

4.1 요약

영남지방에서 목활자 인쇄가 가장 활발하였던 산청에서 간행된 문집 91종을 대상으로 문집의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 문집은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현조(顯祖)가 있음을 증거하는 자료로 집안의 혈통이 존귀함을 증거하는 족보와 더불어 민간 출판의 인기 종목이었다.

2) 문집을 문집, 유집, 실기로 3구분하고, 산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91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문집은 60%, 유집과 실기가 40%로 나타났다. 대부분 1인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별집이며, 시만 모은 시집은 극소수였다. 문집을 낼 만큼 시문이 많지 않음에도 행장이나 제문, 묘갈명 등 전기적인 자료를 부록으로 하여 실기를 간행하는 것은 조상을 현창하려는 의도라고 하겠다.

3) 산청은 남명 조식이 만년에 산천재를 지어 강학했던 곳으로 남명을 배향하

53) <표 12>에서 1종인 경우는 종수 표시를 하지 않았음.

www.kci.go.kr

는 덕천서원이 있는 곳이다. 남명과 그 학통을 잇는 유학자의 문집은 모두 목판으로 인출되고 목활자로 간행되지 않았다. 목활자 인쇄는 한번 인출한 후에는 판을 해체하므로 목판 인쇄처럼 필요할 때마다 동일하게 지식과 정보를 재현할 수 없다.[54] 따라서 장기간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성리학의 학통을 계승하는 유학자의 문집은 목활자 인쇄가 아니라 목판에 판각되었다.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 가운데 과거 급제자도 있었지만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문활동하는 지식인, 즉 향유(鄕儒)라고 할 수 있다. 산청에서 목활자본 저자들의 학문적 경향은 남명학의 전통을 잇는 북인계의 학통이 이어졌으나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정계에서 소외됨에 따라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노사집』을 판각한 신안정사를 중심으로 노사 기정진의 학문을 계승하는 노론계의 학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성재 허전의 성재집을 판각한 이택당을 중심으로 성재 허전의 학문을 계승하는 기호남인의 학통이 이어졌다.

4) 목활자본 문집 저자 91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하면. 저자의 54인(59%)가 19세기에 출생하였다. 이 가운데 절반은 19세기 전반부에, 절반은 후반부에 출생했다. 따라서 문집 저자는 19세기와 20세기 인물에 집중되어 있다.

5) 문집 저자의 성관을 분석하면, 문집을 간행한 31개 성씨 가운데 27개(80%) 성씨가 문집 1-2종을 간행하였고, 안동권씨가 1/4인 23종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다음은 성주이씨(9종), 밀양박씨(8종), 여흥민씨(7종), 상산김씨(5종)의 순으로 문집 간행이 성씨에 따른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장소를 분석하면, 재실이나 종가 등의 개인집, 누정(당포함) 등에서 주로 간행되었다. 선현을 제사하기 위한 재실이나 집안 사람들이 모이는 종회가 열리던 누정에서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집 간행사업이 혈연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족의 학문적 역량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행되었음을 말해 준다.

7) 산청에서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년을 분석하면,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54) 송정숙, “지식과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목판,” 남권희, 노경희, 성봉현, 손계영, 송정숙, 옥영정, 김순석 지음,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파주: 글항아리, 2013), 257.

www.kci.go.kr

40년 동안 계속 증가하다가 1940년 이후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문집 인쇄가 목활자 인쇄보다 간편하고 노력이 적게 드는 신식 석판인쇄나 연활자 인쇄로 대체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아진다.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50년 동안에 78종(86%)이 간행된 것을 볼 때 목활자 인쇄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지역 지식인의 학문과 사상을 확산하는 데에 애용된 인쇄수단이라고 하겠다.

8) 저자 사후 문집 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하면, 저자 사후 10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1/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과반수가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사후 570년경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문집이나 유집은 저자 사후 300년 이내에 다 간행되었는데 비해, 실기는 대부분 저자 사후 150년 이후에 간행되었다.

9) 목활자본 출판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산청은 종이재료인 닥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문집 간행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인쇄자, 즉 각수 또한 다수(75%)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산청 지역이 지식 정보의 생산과 유통, 즉 학술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10) 목활자본 문집의 권책수와 문집의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니, 1책의 비율이 실기(80%), 유집(70%), 문집(32%)의 순으로 실기가 가장 권책수가 적고, 문집이 권책수가 가장 많았다. 실기는 저자 사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난 후 편찬, 간행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11) 목활자본 문집의 판식을 분석하니, 항자수는 19, 20세기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주변란과 어미는 1900년대에 사주쌍변이 증가하고, 1950년대 이후에는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 대신에 상이엽화문어미가 대세임을 알 수 있다.

4.2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고서에는 간기나 판권지 등 간행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서목록의 경우, 판본 감정이 정확하지 않아 원문 이미지나 실물을 통해 일일이 목활자본임을 확인하였다.

www.kci.go.kr

목록에 간행지 기술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고, 서문이나 발문에도 구체적인 간행지역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목활자본은 대부분 문중 단위에서 간행되었으므로 저자의 거주지를 파악하였다. 거주지 확인도 불가한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재실 이름이 나오더라도 같은 이름의 재실이 다수 있으므로 지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과거 장서목록을 통해 문헌을 확인하고 도서관에 가서 복사를 하던 시절에 비하면 연구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종합목록시스템도 보다 정확하게 고도화하여 연구효율을 향상하고 연구자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의 경우, 판본 감정이 부정확하고 간사지 기입 등 목록 기술에 미비한 사항이 많았다. 게다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아니면 대부분 원문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는다. 동일한 판본이라도 소장 도서관별로 상이하게 기술된 목록이 나열되어 있어 접근성도 떨어진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심도있는 해제를 제공하고 있어서 문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제공하는 문헌의 절대수가 적고, 원문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경상대학교 남명학고문헌시스템은 지역의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원문과 이미지도 제공하고 있어 도움이 된다. 하지만 판본 감정에 오류가 간혹 발견되고, 서지목록이 불완전하거나 원문이미지가 구축되지 않은 문헌도 발견된다.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은 판본 감정이나 목록 기술에 오류가 있고, 원문이미지는 일부만 구축되어 있다. 이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산청지역 간행 목활자본뿐 아니라 목판본, 석판본, 신연활자본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기억하고 전달하고자 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등의 조선시대 지식정보 전달시스템으로서 인쇄, 출판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 광역 단위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高麗史』.『嶠南誌』.『大東地志』.『俛宇集(郭鍾錫)』.
『新增東國輿地勝覽』.『宣祖實錄』.『純祖實錄』.『太祖實錄』.
『嶺南文獻錄』.

경남발전연구원.『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기본계획』. 산청: 산청군, 2007.
국립진주박물관 편.『'특별전 산청' 전시도록』. 진주: 국립진주박물관, 2011.
김봉곤. "松山 權載奎의 蘆沙學 繼承과 嶺南地域에서의 活動."『南冥學硏究(南冥學會)』 제34집(2012). 37-76.
김영진. "朝鮮朝 文集 刊行의 諸樣相."『민족문화(한국고전번역원)』 제43집(2014). 5-73.
산청군 문화공보실 편.『내고장 傳統』. 산청: 산청군, 1982.
송정숙. "한국의 인쇄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한국의 문화유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송정숙.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한국고활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2. 39-62.
송정숙. "경남의 목활자본 연구."『서지학연구』 제29집(2004. 12). 381-404.
송정숙.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출판활동."『서지학연구』 제42집(2009. 6). 267-298.
송정숙. "지식과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목판," 남권희, 노경희, 성봉현, 손계영, 송정숙, 옥영정, 김순석 지음.『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3. 251-279.
송정숙. "조선시대 영남의 목활자본 연구." 大東漢文學會 全國學術大會『2015年 秋季學術大會 발표논문집』.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2015.10.30.
柳鐸一.『星湖學脈의 文集刊行硏究』. 부산대학교출판부, 2000.
옥영정. "16세기 후반~17세기 조선의 목활자인쇄와 출판문화적 의미."『한국문

www.kci.go.kr

화(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72(2015), 21-46.
이수건. “족보와 양반의식.”『한국사시민강좌(일조각)』 제24집(1999).
이수건. “남명 조식과 남명학파.”『민족문화논총(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제2·3집(1982). 187-232.
장인진.『영남 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1.
전병철. “일제강점기 경남지역 한적 간행의 지역별 특징.” 제118차 大東漢文學會 全國學術會議『2015年 秋季學術大會 발표논문집』.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동천관 317호, 2016.10.7.
한국사상사연구회 편저.『조선 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2009.
황위주, 김대현, 김진균, 이상필, 이향배. “일제강점기 전통지식인의 문집 간행 양상과 그 특성.”『민족문화(한국고전번역원)』 제41집(2013. 6) 203-2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고문헌시스템. <http://nmh.gnu.ac.kr>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산청군청. <http://www.sancheong.go.kr/tour/contents.do?key=66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www.itkc.or.kr/itkc/Index.jsp>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www.kci.go.kr

www.kci.go.kr